

LG화학, 수익악화 지속 “우려”

1/4분기 매출 1조8689억원으로 16.1% 증가 ... 영업이익·순이익 감소

LG화학은 2005년 1/4분기에 석유화학제품 판매확대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.

LG화학은 2005년 1/4분기에 매출 1조8689억원, 영업이익 1414억원, 경상이익 1560억원, 순이익 1183억원을 달성했다고 발표했다.

매출은 2004년 1/4분기와 비교해 16.1%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6.4% 감소했다. 또 경상이익은 25.6%, 순이익은 22.6% 감소했다.

2004년 4/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.8%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6.4% 늘어났으며 경상이익은 1.9% 감소했고 순이익은 6.5% 줄었다.

자회사 영업실적을 포함한 연결기준으로는 매출 2조743억원, 영업이익 2708억원, 경상이익 2476억원, 순이익 1206억원을 기록했다.

LG화학은 “원화환율 하락으로 2004년 1/4분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감소했지만 폴리올레핀, Acrylate 등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판매확대, 창호 등 전자재 판매호조에 따른 산업재 영업실적 회복, 편광판 호조에 따른 정보전자소재 사업의 수익성 개선 등에 힘입어 2004년 4/4분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했다”고 강조했다.

화성사업 매출은 23.9% 증가한 1조1607억원, 영업이익은 5.7% 늘어난 1164억원을, 산업재는 0.7% 늘어난 495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31.3% 감소한 275억원을 기록했다.

정보전자소재는 매출이 2820억원으로 2004년 1/4분기에 비해 10.8%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190억원에서 14억 손실로 전환됐다.

<화학저널 2005/05/02>